비전개발 5주차 소감문

21600685 조예성

오늘 나누어주신 말씀에서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추를 해보면, 늘 삶의 어려움이나 넘을 수 없는 벽에 있다고 느낄 즈음에 항상 아무 생각없이 성경을 펼쳐 들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어떠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마음이 항상 편안했다.그 다음에 그 말씀이 갖는 의미를 알게 될 때, 참으로 많이 깨졌고 내가 그 동안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었다. 교수님의 말씀 중에 현재 성경은 나에게 영적인 안경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읽었던 말씀 중에 나를 찔러 쪼개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주는 진리가 크게 와 닿지 않았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었다.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았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내 능력을 과신하고 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대로 향하고 있을 때 즈음, 주님께서는 다시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다시금 주만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음을 이번 학기에 철저히 느끼게 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지난 학기에 주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기대치도 않던 장학금과 TA로 섬기게 해주신 모든 직분들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행한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되어가고 있을 때,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컸었다. 마침,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열심히 사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마치 세상 가치관에서는 멋있고 훌륭한 가치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주를 향한 나의 바벨탑을 성실이라는 가림막에 가리워, 내 교만을 열심히 쌓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는 이번 학기를 통해, 철저히 겸손해지도록 나를 훈계하고 계셨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부여하심으로서 나의 작음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셨고 내가 주님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느끼게 해주셨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없이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다 잘되고 결국 그렇게 나아가면.. 나는 결국 교만의 끝까지 가, 주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말 것이다. 젊은 25살의 나이에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감사하고 주님께 철저히 엎드려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이 성경의 말씀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큰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주님이 진리이시다.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